

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 범죄 청소년의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 경 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요 약〉

본 질적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 남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특별히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문헌들은 폭력 가정의 부정적인 남성 모델이 남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남자 청소년은 종종 남성적 유능감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들의 범죄가 그들의 남성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남자 청소년들이 어떻게 가정폭력을 경험하는지, 그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남성성이 어떻게 범죄와 연관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본 연구는 미국 미네소타 주의 한 청소년 교정 기관에 입소했던 남자 범죄 청소년 12명에 대해 행해진 최소 3회 이상의 인종학적 심층 면접 자료, 주당 1-2회 참여 관찰 후의 현장 기록, 그리고 교정 기관의 공식 문서로 구성된 2차 자료를 사용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열린 부호화, 표를 이용한 자료 축소, 주제별 분석을 위한 재부호화, 주요 범주와 하위 범주들의 발견, 표를 이용한 자료 재축소화, 그리고 집단 간과 집단 내 유사점과 차이점 발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아동기 가정 폭력 경험이 사춘기 동안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폭력에 노출된 남자 범죄 청소년은 폭력 가정에서 무기력감을 경험했고, 폭력의 피해자로서 억압된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 다음으로,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과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은 전반적인 성정체성의 표현에 있어 공통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관계적 성정체성의 형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은 그들의 관계적 성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처럼 남성적 유능감을 보여 주기 위해 폭력과 범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1. 서론

아동기 가정 폭력 경험이 성장기 반사회적 행동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됨에 따라 범죄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가정 폭력 경험이 갖는 유해한 영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Jonson-Reid, 1998; Scarpa, 2001). 아동기 가정 폭력 경험의 영향력을 검증해 온 연구들은 여아는 내면화된 증후들은 보이는 반면, 남아는 비행이나 범죄 같은 외면화된 증후들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Carlson, 1990). 미국 역사를 통틀어 남성의 범죄가 여성의 범죄에 비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가정하여, 많은 범죄학자들은 성정체성, 특히 남성성이 어떻게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Connell, 1995; Messerschmidt, 1993). 그러므로 아동기 가정 폭력 경험과 이후의 범죄 간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가정 폭력 경험, 남성성, 그리고 범죄가 상호 연관되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질적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가정 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헌들은 몇 가지 연구의 한계를 나타낸다. 첫째, 가정 폭력 경험의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정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둘째, 거의 모든 연구들이 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와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보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으로 남성의 범죄율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연구들은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제시된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의 성정체성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과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을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또한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서의 선택과 경험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 내 한 교정 기관에 입소한 남자 범죄 청소년 집단을 연구하는 본 연구는 1) 남자 범죄 청소년이 그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이 경험이 어떻게 성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2)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과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사이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표출하는지를 조사하며, 3) 이들의 성정체성이 어떻게 범죄와 연관되는지를 탐색한다.

2. 이론적 배경

1)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것

가정 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공격을 포함하는 폭력적

강압적 행동 양상을 일컫는다(Ganley & Schechter, 1996). 역사적으로 아동은 가족 관계에서 폭력을 목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Pleck, 1987), 연구자들은 이런 경험을 하는 아동을 가정 폭력의 “목격자” 혹은 “관찰자”라고 지칭하다가 최근에는 가정 폭력에 대한 “노출(exposure)”로 정의하기 시작했다(Fantuzzo & Mohr, 1999). 대체로 가정 폭력에 대한 노출은 폭력 사건을 보거나 듣는 것, 폭력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상처나 심리적 우울감 등을 관찰하는 것, 또는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가 되는 것을 포괄한다(Holden et al, 1998). 통계에 따르면, 2000년 미국 내에서만 879,000명의 아동이 방임, 구타, 성학대, 심리적 학대와 같은 아동 학대의 피해자였고(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2),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30%-60%가 직접적 아동 구타의 피해자였다(Office of Juvenil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00).

한편, 가정 폭력은 성과 권력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로 알려져 있다. 첫째, 이성애 관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5배에서 8배 정도 더 많이 파트너에 의해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U. S. Department of Justice, 1998). 둘째, 아버지, 의붓아버지, 어머니의 남자 친구가 어머니, 의붓어머니, 다른 여성들보다 아동에게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한다(Hick & Gaughan, 1995). 셋째, 아동 성학대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피해자는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이다(Barnett et al., 1997). 그러므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남성이 여성과 아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여성과 아동에게 남성보다 낮은 권한을 부여하는 가부장제의 결과라는 점에서(Dobash & Dobash, 1979),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검토함이 없이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도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성과 권력의 견지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위해 남성 가해자에 의해 행해지는 가정 폭력에만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가족 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 또는 남성에 의한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2) 가정 폭력에 대한 남자 아동의 반응들

최근 들어 많은 연구들이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특별히 아동기의 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가정 폭력에 대한 남자 아동의 반응을 남자 아동이 성장 후 구타자가 되는 폭력의 세대 간 전수, 가정 폭력 경험의 외면화, 비행이나 범죄의 측면에서 논의해 오고 있다. 첫째, 경험적 연구들은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남자 아동은 성장 후 친밀한 관계에서 구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입증해 왔다(Silvern et al., 1995).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원가족에서의 폭력 경험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행사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은 아니며, 단지 폭력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 불과하다고 주장한다(Carden, 1994; Pagelow, 1992). 둘째, 초기의 연구들은 아동기 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 아동의 싸움이나 폭력 사용 등의 외면화된 행동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해 왔다(Jouriles & Norwood, 1995; Zahn-Waxler, 1993). 셋째, 연구 결과들은 남자 아동의 가정 폭력 경험이 이후의 비행, 성범죄, 또는 일반적 범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오고 있다

(Caputo et al., 1999; Farrington, 1989; Hawkins et al., 2000).

3) 성정체성(Gender Identity)

초도로우(Chodorow, 1974)의 정신 분석적 대상관계 접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분명한 성정체성을 발달시키며, 이때 양육자인 여성의 모성적 역할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어머니의 양육 활동은 여아가 어머니와의 연계 속에서 정체성을 발달시키게 하므로 여아의 정체성은 관계성에 의해 정의되는 반면, 남아는 남성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자신을 어머니로부터 분리하고 아버지나 다른 남성과 동일시하게 되므로 분리와 독립에 근거한 정체성을 형성한다(Chodorow, 1974, 1978).

나아가, 길리건(Gilligan, 1982)은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와 연결 속에서 자신을 규정짓는 반면, 남성은 자신이 타인과 다르다는 견지에서 타인과 분리하여 자신을 규정한다. 그리하여, 여아는 타인을 보호하고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성장으로 인식하지만, 남아에게 있어 성숙은 분리 과정에 의해 달성되므로 관계는 포기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여아는 관계와 희생을 포함하는 돌봄의 윤리를 중요시하고, 남아는 타인으로부터 분리된 개별성, 타인과의 경쟁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러한 초도로우나 길리건의 주장에 대해 여성주의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정체성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고 반박한다(hooks, 1984; Scott, 1988). 이들에 의하면 초도로우나 길리건의 주장은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 여성들을 하나의 범주로 동질화함으로써 계급이나 인종과 같은 요인들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성차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의 범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성정체성의 구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남아와 여아는 자신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성정체성의 형태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4) 남성성(Masculinities)

남성성은 단순히 여성성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만 간주되어질 수는 없으며, 계급, 인종, 성성(sexuality) 같은 변수들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Connell, 1995). 일반적으로 백인 중산층 이성애주의자인 남성이 패권주의적(hegemonic) 남성성을 대표하는 반면(Connell, 1987), 동성애자인 남성은 패권주의적 남성성과 비교할 때 '종속적(subordinate)' 남성성으로 정의되고, '주변적(marginalized)' 남성성은 계급, 인종을 포함하는 변수와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Connell, 1995).

가부장제 사회에서 패권주의적 남성성은 여성의 종속화를 위한 전략들에 기반하며, 여성은 남성을 위한 잠재적인 성적 대상으로써 존재한다(Connell, 1995; Donaldson, 1993). 패권주의적 남성성으로 대표되는 중상층 남성들은 하층 남성들에 의한 과장된 남성성, 여성 혐오에 대한 경멸을 나타내고, 하층, 유색인, 청소년, 동성애자인 남성들에 대한 자신들의 우월성을 확인하려고 한다(Pyke, 1996).

공격적인 하층 백인 남성성에 의한 남성성은 동성애자 혐오, 여성 혐오, 가부장제적 가정의 구성으로

대표된다(Connell, 1995). 이들은 자신의 신체적, 성적 유능감을 과시함으로써 남성성을 표출하며, 구체적으로는 운동, 군복무, 폭력적인 범죄 등을 통해 '과장된(exaggerated)' 남성성을 보여 준다(Connell, 1995; Pyke, 1996).

흑인 남성은 '냉담한 자세(cool pose)'로 불리는 독특한 행동 방식을 발전시킨다(Major, 1986). 이는 겁 없는 걸음걸이, 초연한 얼굴 표정, 남성성을 과장하는 동작 등이 결합된 특성을 나타내며, 종종 랩 혹은 농구를 통한 유능감의 표출을 통해 드러난다.

5) 남자 청소년의 남성성과 범죄

산업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범죄,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 살인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적 자부심과 '사내다운(macho)' 행동의 지향이 살인의 주요 동기였다(Polk & Ranson, 1991). 그리하여, 남성성과 범죄 간의 연계는 범죄학 연구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하게 되었고, 범죄학자들은 점차 남성이 범죄의 대부분을 저지른다는 것에 근거하여 범죄를 남성성의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해 왔다. 이들은 다른 자원이나 통로가 제한되어 있을 때 범죄는 남성성을 표출하기 위한 자원으로 공헌한다고 보았다(Messerschmidt, 1993). 즉, 중상층의 남자 청소년은 학문적 성취를 통해 자신의 남성적 패권을 방출하는 반면, 비교육적 환경 속에서 학문적 성취가 어려운 하층의 남자 청소년은 자신의 남성성을 보여 주기 위해 공격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Messerschmidt, 1993). 만약 하층 남자 청소년이 인종이나 계급으로 인해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에서 주변화(marginalization)되는 경험을 한다면 '항의적(protest)' 남성성을 표출하기도 하는데(Connell, 1995), 이는 자신의 남성적 측면을 과장하고 공격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남자 청소년 중 일부는 학교나 직장 같은 구체적인 사회적 장에서 "권위"에 반항 혹은 불복종하는 '적대적(oppositional)' 남성성을 표출하기도 한다(Messerschmidt, 2000).

종합적으로, 청소년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인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남성성을 구성하고 표출한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은 규범적 혹은 대중적인 형태의 남성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즉, 남자 청소년은 사회적 구조 내 자신의 위치, 권력과 자원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다르게 남성성을 형성할 것이다.

3. 통합적 이론: 가정 폭력 경험, 남성성, 범죄 간의 역동성

이상에 살펴본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는, 가정 폭력 경험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위한 통합적 이론은,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나 다른 남성 역할 모델과 동일시한다는 심리학적 정체체성 이론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를 사회화 과정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 간주하며, 그 과정에서 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의 정체체성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에 따라 성적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 가정 폭력 경험, 사회적 또는 상황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성적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폭력 경험, 남성성, 범죄의 기저에 있는 역동성을 탐색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자료 중 초기에 수집된 참여 관찰 노트와 심층 면접 원고에 대한 검토에서 도출된 몇 가지 가정들로부터 시작한다. 본 연구의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1. 남자 범죄 청소년의 부모 애착 형태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과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 남자 범죄 청소년의 부모 애착 형태는 이들의 성적체성의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남자 범죄 청소년의 성적체성은 가정 폭력을 경험한 집단과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4.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의 범죄 동기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의 범죄 동기와 다를 것이다.

4. 연구 방법

1) 방법론

상이한 인종과 계급에서 온 남자 범죄 청소년과의 심층 면접은 그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맥락 내에서 그들 자신의 남성성을 성취하기 위한 선택들을 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심층 면접은 또한 어떻게 일부 청소년에게서 폭력적 또는 과장된 남성성이 창출되고 강화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질적 연구는 구체적으로 인종학(ethnography)과 해석적 현상학(interpretive phenomenology)에 기반을 둔다. 인종학적 방법론은 참여자의 관점으로부터 그들의 세계를 보게 하며, 참여자가 처한 환경이나 사회적 맥락 내에서 그들의 시각으로부터 현실을 이해하게 돕는다(Brooks, 1994; Glasser & Strauss, 196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인종학적 방법론은 남자 범죄 청소년의 관점으로부터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돕는 장점이 있다(Patton, 1990). 해석적 현상학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신념, 관습 등을 집중적으로 탐색한다(Benner, 199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현상학은 남자 범죄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기보다는 이들의 경험에 대한 면밀한 묘사를 통해 이들의 경험에 내재하는 의미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Van Manen, 1997). 결론적으로, 인종학은 현상의 관찰에, 현상학은 자료 해석에 유용하므로, 현상학적 관점은 남자 범죄 청소년의 이야기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인종학적 관점은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환경적,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2) 자료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관련 연구 프로젝트 “청소년 교정과 청소년의 남성성(Juvenile Corrections and Adolescent Masculinities)”를 위해 수집된 참여 관찰 노트, 인종학적 심층 면접, 교정 기관의 공식 문서로 구성된다. 본 자료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미국 내 미네소타 주의 한 남자 청소년 교정 기관에서 수집되었고, 본 연구자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 조교로 참여하면서 주연구자, 다른 한명의 연구 조교와 함께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했다.

12명의 연구 참여자는 폭력 혹은 상습 범피로 교정 기관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주한 15세에서 17세 사이의 남자 범죄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모두 하층 출신이며, 인종적으로는 흑인 4명, 백인 3명, 동양계 2명, 남미계 1명, 인디언계 1명, 다민족계 1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초기 면접 이래 교정 기관에 적어도 4개월 이상 거주 예정이면서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 청소년 자신과 청소년의 보호자가 연구 동의서에 서명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종 선발했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초기 면접에서부터 각 참여자에게 연구에 사용될 여질 이름을 부여했고 그 이름이 연구 과정 전체를 통해 사용되어졌으므로 모든 연구 결과물에서 참여자의 실제 이름은 가려진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중 개방적 질문들을 사용한 인종학적 심층 면접은 각 참여자가 교정 기관에 거주하는 동안 적어도 3회 이상, 가능한 경우 교정 기관 퇴소 후 2회까지 행해졌다. 45분에서 90분 정도 행해진 각 면접은 참여자의 가족, 중요한 관계, 사회적 지지, 학교, 중요한 생애 사건, 범죄, 부업, 자기 인식, 역할 모델, 연애, 성적체성 등 개인적 역사에 관한 참여자의 주관적 담화를 제공한다. 공식적 교정 기관 자료는 참여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교정 기관 직원들이 참여자에 대해 평가한 노트를 포함하여 참여자가 면접에서 제공한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참여 관찰은 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팀이 16개월 동안 일주일에 1-2회 주기적으로 교정 기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여자들이 교정 기관 내의 일상생활에서 남성성을 표출하는 방식을 관찰한 후 구체적인 현장 노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연구 과정에 대한 반영

관련 연구 프로젝트 “청소년 교정과 청소년의 남성성”에 연구 조교로 참여하면서 나이 든 동양 여성으로서 연구자는 성, 인종, 계급, 국적, 문화, 연구자로서의 지위 등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 청소년과 연구자 사이의 많은 상이점을 경험했다. 미국 사회에서 범죄 청소년이 된다는 경험의 결여로 인해 연구 과정을 통틀어 연구자에게 유일했던 존재론적 특전은 ‘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반은 다행히도 연구자가 범죄 청소년의 세계를 이해해 나가는 점진적인 학습 과정으로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경험에 대한 해석은 행위자의 주관성과 해석자의 주관성 사이의 일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막스 베버(Marx Weber)의 조언을 기억하게 했다(Ringer, 1997). 즉, 범죄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 자신이 범죄 청소년일 필요는 없었다.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범죄 청소년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연구자의 능력이었다. 그러나 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이 연구팀의 지속적인 공동 작업에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다른 연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청소년의 담화, 문화적인 용어들과 친숙해질 수 있었고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명확하고 깊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4) 자료 분석

대부분의 질적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귀납적이어서 연구의 결과물은 자료로부터 출현했다. 즉, 연구 초기에 수집된 참여 관찰 노트, 심층 면접 원고로부터 출현한 몇 가지의 가정들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자료 분석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정련되었다. 초기 분석은 자료 중 본 연구에 의미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 자료의 각 행을 읽고 다시 읽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서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심층 면접 원고 각각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요약본을 작성했고, 남성성에 관한 연구자의 개인적 편견에 근거한 가정들을 넘어서기 위해 “열린 부호화(open coding)”를 시작했다(Strauss & Corbin, 1990). 열린 부호화 과정에서 연구자는 구, 문장, 이야기를 개념적으로 이름 붙이고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 자료 내에 있는 주요 범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에서 연구자는 주요 범주와 하위 범주들을 발전시켰고, 그 과정에서 자료를 읽고 다시 읽으면서 자료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자료 축소의 형태는 연구자가 주제, 주요 범주, 하위 범주와 관련된 자료들을 추려낸 후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 집단을 위한 매트릭스(matrix)와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 집단을 위한 매트릭스를 각 집단 별로 30 쪽 정도씩 작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단계에서 자료 분석은 부호화된 것들로부터 개념 또는 범주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호들을 묶어가는 “주제별 분석(thematic analysis)”, 그리고 난 후 이러한 개념과 범주들로부터 주제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따랐다(Coffey & Atkinson, 1996). 자료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요 범주와 하위 범주에서 나타나는 참여 청소년 두 집단의 유사성과 상이성의 차원들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 당 약 8쪽에 달하는 자료 재축소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두 집단간 비교를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매트릭스는 자료 분석 과정의 문서와 주제 진화의 연대기로 공헌했다. 이상의 자료 분석 전 과정에서 연구자는 많은 질적 연구자들이 해 온 것처럼 워드 프로세싱(word-processin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의 편집과 축소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5)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일차적 한계는 감금된 범죄 청소년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는 것이다. 참여자 전원이 범죄자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어느 정도 범죄와 거리 문화에 근거한 남성성의 형태들에 노출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감금된 청소년으로서 참여자의 담화는 교정 기관 내 치료로부터 배운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이들에 의해 표출된 남성성은 교정 기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교정 기관에 있는 청소년들은 종종 성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말하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여자의 이야기에 담겨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2차 자료 분석에서 기인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수집된 것으로, 특히 면접 질문들은 본 연구를 위해 구조화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참여자가 연구자의 분석에 대해 “맞다”는 반응을 할 때 신뢰할 수 있으나(Lather, 1991),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정직하고 비판적인 반응과 해석을 묻지 못한 한계를 또한 가진다.

5. 연구 결과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개인의 역사는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성정체성과 관련된 청소년의 담화에 대한 분석은 두 집단 간 혹은 각 집단 내에서 상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함에 있어 몇 가지의 큰 범주와 세부 범주들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는 가족 경험, 또래 남자 청소년과의 관계, 여성에 대한 태도, 성정체성의 표현, 폭력, 범죄의 주요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1) 가족 경험

(1) 가족 관계에서의 위치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은 청소년이 노출된 태도, 행동, 신념들의 결과물이다(Witt, 1997). 그러므로 청소년의 구체적인 가족 경험과 가족 내에서의 위치는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뿐 아니라 성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체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가족을 지지나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로 인식하기보다 공포나 무기력감을 느끼게 한 체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구체적인 가정 폭력 장면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폭력의 공포 속에서 어린이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폭력 장면을 목격하거나 폭력 사건에 대해 무덤덤해지려고 했음을 회상했다.

... 모두 그날 밤 병원에 갔다. 서로 병을 깨고 싸웠고, 온 천지에 머리카락과 피가 가득했다... 나는 7살 정도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냥 무서웠다... (브래드 면접 2, 2002).

... 부모님은 싸울 때면 해가 지기 전에도 형과 나를 우리 방으로 보냈다. 우리는 방에 있는 동안 장

난감 같은 걸 갖고 놀았지만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다(험프리 면접 2, 2002).

또한, 일부는 폭력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나 어린 형제자매들을 돌보거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했다고 말했다.

... 어머니의 남자 친구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때마다 내가 나서서 때리지 말라고 하거나 그를 때려 줬다... 난 경찰에 전화하기도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았다... 어머니가 맞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니일 면접 1, 2001).

... 나는 길거리에서 자랐다... 부모가 내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스스로 나를 돌봐야 했다... (트레버 면접 1, 2001).

반면,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정을 지지와 돌봄이 있는 꽤 안정된 자원으로 표현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 우리 식구는 약물 중독 같은 문제가 없다... 우리는 매우 친하고 잘 지낸다(에릭 면접 1, 2001)

... 우리 가족은 매우 사랑이 많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 주려고 한다(케이 면접 2, 2002).

... 여기 (교정 기관)에서는 나의 부모를 비난하지만... 나의 부모는 항상 나를 걱정하고 돌봐 줬다... 나를 방임한 적이 없으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 줬다... (조쉬 면접 2, 2002).

이상의 이야기 속에서 이들의 가족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정 기관에 있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족 문제를 갖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부모 애착 형태

대부분의 심리학적 성장체성 이론들은 남이는 필연적으로 아버지나 다른 남성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가정한다(Chodorow, 1978; Freud, 1949; Gilligan, 1982; Parsons, 1970).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부는 아버지를 싫어했다.

... 어머니는 법정 출두일 등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함께 한다... 나는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면 어렵었다(험프리 면접 1, 2002).

... 아버지가 나를 때릴 때 어머니가 말려 줬다... 어머니가 그림다... 어머니가 나를 구해 줬었다(제이슨 면접 3, 2001).

... 아버지는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한테 20달러쯤 주는 게 다였다. 너무 남성적이라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트레버 면접 1, 2001).

나아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역할 모델은 일차적으로 어머니, 자매, 이모, 할머니와 같은 여성이었다.

... 이모는 지혜 같은 것을 갖고 있었다... 아는 게 많았다... 내가 존경했던 남자는 없었던 것 같다(브래드 면접 2, 2002).

... 누나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 많은 규칙들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누나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을 가게하고 나를 때리지 않는다... 다만 가끔 경고를 한다... 이건 니 인생이다... 누나는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듣는다... 나도 누나 말을 듣는다(제이슨 면접 2, 2001).

... 어머니는 아주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했고...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 그래서 어머니를 존경한다(니일 면접 2, 2001).

한편,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어머니와 관계보다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아버지를 자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로 생각하는 반면, 어머니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다른 사람으로 그러지는 경향이 있었다.

... 어머니는 항상 잔소리를 하고 같은 걸 가지고 반복해서 말해서 신경을 건드린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안다... 아버지와는 갈등이 생길 일이 없다(에릭 면접 3, 2001).

처음 이 기관에 왔을 때 어머니는 나를 돌봐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딱 두 번 왔었다. 어머니는 항상 변명이 많다(쥬쉬 면접 1, 2002).

또한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가족 내의 남자 구성원을 자신의 중요한 역할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다.

형은 내 주요 역할 모델이다. 친구 같기도 하고... 나는 형 친구들도 존경한다. 그들은 모두 재미있는 사람들이다. 돈도 잘 벌고 놀기도 잘 논다(에릭 면접 2, 2001).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한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뭐든 해 준다(토마스 면접 2, 2001).

내 의붓아버지, 삼촌이 내 역할 모델이다... 삼촌은 일을 열심히 하고 유명하진 않지만 큰 집도 한 채 갖고 있고 돈도 잘 번다(일라이자 면접 2, 2001).

2) 또래 남자 친구와의 우정

심리학적 성정체성 이론들에 따르면, 남자는 어머니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명확한 개별적 정체성의 경계를 유지하며(Chodorow, 1978), 청소년의 개별성은 또래 남자 친구들과 유사성과 협동보다는 경쟁을 통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Gilligan, 1982). 이런 점에서 또래 남자 친구와의 우정은 남자 청소년의 성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 심리학적 성정체성 이론과 달리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친구를 유일한 지지체계로 생각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족과 문제가 있을 때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 아버지가 나를 내쫓았을 때...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아버지는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았다... 친구들의 집에 가면 친구들이 나를 위해 문을 열어 줬다(트레버 면접 3, 2001).

... 거의 매일 아버지는 벨트를 가지고 나를 때렸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나는 밖에 나가서 내 친구들과 어울리겠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은 나를 진심으로 돌봐 줬고 때리지 않았다(제이슨 면접 2, 2001).

즉,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에게 친구는 서로 돕고 옹호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족이었고, 이들은 친구가 자신들을 배신할 것이라고 거의 믿지 않았다.

...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항상 붙어 다녔다... 만약 내 친구가 맞고 있다면 나는 바로 뛰어들어 나를 희생할 것이다(트레버 면접 2, 2001).

... 우리는 서로 너무나 잘 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 (터렐 면접 3, 2002).

아울러,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교정 기관에 있는 동료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 작업에 가치를 두었다.

... 여기 있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협동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기관 직원들에게 고자질 하느라 전쟁이다... 우리가 협동 작업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제이슨 면접 3, 2001).

...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을 공유하고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좋다(트레버 면접 3, 2001).

반면,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가족을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또래 남자 친구를 “동료(associates)”라고 불렀고, 친구를 거의 믿지 않았다.

... 나는 친구가 없고 동료가 있을 뿐이다... 내 친구는 나의 친형, 어머니, 아버지, 내 아들이다... 그들이 가장 좋은 친구들이다(일라이자 면접 1, 2001).

... 나는 친구가 없고 가족과 함께 지낸다... 진짜로 친구가 없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을 믿기 어렵다(토마스 면접 2, 2001).

... 갱 친구들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몇 명만 나에게 전화를 했을 뿐이다... 그들은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케이 면접 4, 2002).

이들 중 일부는 친구에 대한 불신과 친구의 배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친구를 믿기 전에 친구가 믿을 만한지 시험해 보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라. 만약 비밀을 지킨다면 그는 친구일 것이다. 의도적으로 버스 카드를 잃어버린 척하고 누군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 만약 도와주러 온다면 친구다(일라이자 면접 2, 2001).

게다가,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기관에 있는 동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동료들은 자신과 매우 다른 사람 또는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 친구이려고 하던 동료도 그 다음날이면 적이 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동료들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다(토마스 면접 1, 2001).

... 난 여기 있는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친구가 없다... 동료들을 배신하고 싶지 않지만 얼마 전 기관 직원이 동료들을 고자질하지 않으면 나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고자질했다(일라이자 면접 2, 2001).

이들의 기관 내 동료 관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백인이면서 학업 성취 능력이 뛰어난 에릭이 보여 준 ‘패권주의적(hegemonic)’ 남성성이었다. 그는 다른 동료들에 비해 자신의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고, 유색인 동료들이 표출하는 과장된 남성성에 대한 경멸을 노골적으로 표현했

다.

... 동료들조차 내가 똑똑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곳에 있는 동료들보다 내가 훨씬 똑똑하다고 느낀다. 훨씬 지적이고 덜 빈민스럽다(에릭 면접 4, 2001).

... 난 그들이 듣는 랩을 견딜 수 없고 권투나 농구를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동작들이 싫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나를 성가시게 한다(에릭 면접 4, 2001).

3) 여성에 대한 태도

여성의 대상화와 여성을 둘러싼 남성들 간의 경쟁이 '패권주의적(hegemonic)' 남성성의 본질을 구성한다(Connell, 1995).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태도는 참여자의 남성성의 구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의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여성의 외모 뿐 아니라 성격에서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태도 중의 하나가 신체적 매력에 근거하여 여성을 평가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임을 가정할 때(Benson & Vincent, 1980), 이들은 여성에 대해 덜 성차별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사실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격이 좋다면 외모가 별로라도 데이트할 것이다. 내가 처음 만났던 여자도 예쁘지는 않았지만 성격이 좋아서 만났다(함프리 면접 3, 2002).

성격,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본다... (니일 면접 2, 2001).

내 여자 친구의 성격, 행동 방식에 끌렸다. 그녀는 친절하고 으스스대지 않는다(제이슨 면접 2, 2001).

반면,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여성의 성격보다는 외모를 선호했고, 일부는 구체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의 기준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부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강요되어 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여성에 대해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이들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Benson & Vincent, 1980).

나보다 크지 않고 마르고 금발 머리인 여자가 좋다(에릭 면접 2, 2001).

... 담배 피우지 않고 집에서 사는 여자,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여자라면 사귄 것이다(케이 면접 3, 2002).

자기를 잘 돌볼 줄 아는 여자... 학교 성적이 좋고, 똑똑하고... 짝 끼는 옷을 입지 않고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의 치마를 입는 여자... (니노 면접 3, 2002).

이들 중 일부는 또한 여자 친구를 갖는 것이 자신이 남성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고, 사춘기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자 친구 사귀는 것을 꼽았다. 이는 이성애 관계에 근거하여 남성성을 판단하는 전통적 남성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O'Neil & Nadeau, 1999).

사춘기 때 난 여자 친구가 필요했고, 성관계를 원했다... 이것이 사춘기 아이들이 걱정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나는 항상 여자 친구가 있었다... 십대 남자 청소년은 사랑에 관해 걱정하지 않는다... (일라이저 면접 3, 2001).

... 여자 친구가 있을 때 더 나은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된다... 이것이 내가 남자를 정의하는 부분이다... 남자다운 남자는 여자 친구를 갖는다... (에릭 면접 2, 2001).

4) 성정체성의 표현

(1) 관계 지향성과 성취 지향성

자전적 이야기 서술에서 여성은 사람이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반면, 남성은 자신이나 성취를 강조한다(Thorne, 1995). 그러나,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졌을 때와 나쁜 인식을 가졌을 때를 일차적으로 관계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요즘 나는 나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있게 하면서 좋은 느낌을 갖는다(험프리 면접 1, 2002).

나를 담당한 기관 직원에게 정직하고, 어머니에게 정직할 때 나에 대해 좋게 느낀다(니일 면접 1, 2001).

아버지에게 비싼 생일 선물을 했을 때 아버지가 웃는 것을 처음 보았다... 기분이 좋았다... 난 우리 가족에서 가장 나쁜 아들인데... 아버지는 나한테 말할 때 웃은 적이 없는데... (제이슨 면접 1, 2001).

한편,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해 좋게 느꼈던 때를 관계보다는 개인적 성취의 경험들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7학년 때 전 과목에서 A를 받았을 때 행복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 주었다... (케이 면접 1, 2002).

...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 문제의 답을 찾아 갈 때... 매우 행복했다(니노 면접 1, 2001).

여기에서 남들보다 빨리 치료 프로그램을 따라 이동하는 것... (토마스 면접 1, 2001).

(2) 정서적 표현

사회적 규범이 남성이 정서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을 제지하고 점차 남성의 정신 세계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이분화됨에 따라 남성은 감정, 친밀감, 정서를 인간적인 것이라기보다 여성적인 것이라고 밀게 된다(O'Neil & Nadeau, 1999). 그리하여, 남자는 감정을 보이는 것이 여성성, 열등감,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슬픔, 공포, 상처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자유로웠다.

... 아버지는 나에게 남자 아이는 울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나도 때때로 가슴이 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한다. 나도 때때로 운다... (제이슨 면접 2, 2001).

... 어머니와 삼촌은 술가게가 문 닫기 전에 술을 구하려고 호수 위의 흔들리는 빙판 위로 차를 몰았다... 난 너무 무서웠고, 밖은 추웠다... (브레드 면접 2, 2002).

어머니의 건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기 있는 동료들 앞에서 운 적이 있다... 어머니는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두려웠기 때문에... 울었다(험프리 면접 3, 2002).

반면,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다. 대부분이 슬픔, 공포, 상처 등의 표현을 자제했고, 특이하게도 남성적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노의 표현에만 익숙했다.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나는 많이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어린 남자 애가 아니었다(에릭 면접 3, 2001).

...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면 난 결코 슬퍼하지 않는다... 난 결코 울지 않는다. 내가 만약 슬프다면 뭘가에 대해 화가 난 것이다(조쉬 면접 3, 2002).

전에 누군가가 총을 꺼냈을 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나를 쓰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 주변에 내 친구들이 많았는데... 난 그냥 거기 서 있었고, 두렵지 않았다(케이 면접 3, 2002).

(3) 신체적, 운동적, 성적 유능감

가정 폭력 경험의 유무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신체적 강함, 운동 능력, 성적 유능감에 대한 집착을 나타냈다. 또한 초연한 태도, 랩이나 농구에 등장하는 몸짓이나 표현을 모방하고 있었다. 일부의 참여자에게 잘 발달된 근육질의 몸매나 신체적 강인함은 매우 중요했다.

... 성적인 몸매를 갖고 싶다... 6팩, 8팩... (제이슨 면접 3, 2001).

좋은 외모를 갖는 것... 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좋은 몸매를 갖는 것은 가산점... (에릭 면접 3, 2001).

대부분의 참여자에게 운동 능력 또한 남성임을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 나는 운동에서 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했다(터렐 면접 2, 2002).

나는 어렸을 때 유명한 농구 선수였다... 사람들은 나를 보러 왔다... 어머니, 아버지, 형의 지지를 받았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 애들이 많았다(일라이자 면접 2, 2001).

거리 문화에 근거한 남자 동년배 집단에서는 성적 유능감이 높이 평가받고 그 집단에 소속되는 자격 요건이 된다(Barker & Loewenstein, 1997). 이러한 거리 문화에 익숙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남자 동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여성들과 사귀기도 하고 집단 공간에 합류하기도 하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연상의 여성들과 첫 성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성적 유능감은 이성애 관계의 과시, 많은 여성과의 경솔하고 일시적인 성관계, 미혼부가 되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 그 여자는 성관계를 하기 원했고, 나와 내 친구가 함께 그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터렐 면접 3, 2002).

... 내가 15살 때 그 여자는 30살쯤이었다... 나는 그 여자를 만나서 저녁을 먹고... 어른처럼 어울려 놀았다... (일라이자 면접 2, 2001).

... 난 10살 때 동정을 잃었다... 내 친구가 나를 그 여자에게 밀고 커버를 씌웠다. 그 여자가 다 알아서 했는데... 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다... 난 떨고 있었고 무서웠다(트레버 면접 3, 2001).

(4)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전통적인 남성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남성은 동성애에 대한 적대감 또는 공포를 나타낸다(Pleck et al, 1994). 본 연구에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두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질문했을 때 남성 동성애자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 주었고, 일부는 동성 친구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데 자유로웠다.

사람들이 남성 동성애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지만, 동성 연애가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하다면 그들을 행복하게 하라(헴프리 면접 3, 2002).

... 나는 친구들과 키스를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친구인 조를 포옹한다... 그러면 그는 내 곁을 떠나려고 하지만... (트레버 면접 2, 2001).

한편,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남성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그들을 비웃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친구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너, 봤니?"하고 말한 후 그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케이 면접 3, 2002).

... 그건 상스럽고 난잡하다... 아주 나쁘다... (토마스 면접 2, 2001).

요약하면, 성적체성의 표현에 있어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관계 지향성, 정서적 개방성, 비성차별적 태도,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좀더 유연한 태도 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지만, 체력, 운동 능력, 성적 유능감 등의 측면에서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과 유사하게 전통적 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을 보여 주었다.

5) 폭력

(1) 남성들 사이의 폭력

남성들은 자신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력을 통해 분노나 좌절을 보여 준다(Barker & Loewenstein, 1997).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의 폭력 경험을 살펴 보는 것은 그들의 남성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나 그렇지 않은 참여자나 모두가 다양한 상황에서 남성들 사이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익숙했다.

... 나는 누구에게든 매우 폭력적이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그와 싸웠다... (험프리 면접 4, 2002).

... 나는 형들과 걷다가 누가 우리를 알보고 떠들면 곧 싸울 준비를 했다(제이슨 면접 2, 2002).

...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만나면 총을 쏘거나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 사람들의 차를 후려쳤다(조쉬 면접 2, 2002).

...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서 그들을 때려 쳤다(케이 면접 2, 2002).

한편,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 중 제이슨은 교정 기관 직원의 권위에 불복중하면서 '적대적(oppositional)' 남성성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제이슨의 위협적인 말에 교정 기관 직원은 제이슨이 두렵다고 했다(참여 관찰 노트, 2001년 8월). 아동 폭력의 피해자이며 가정에서 가장 나쁜 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제이슨은 또한 동양계 유색 인종으로서 받은 사회적 차별과 학교에서의 주변적인 위치 때문에 자신의 남성적인 면을 과장하면서 '항의적(protest)' 남성성을 표출하기도 했다.

... 나를 모욕적으로 중국인이라고 부르면 싸웠다. 동성애자라고 부르는 것보다 모욕적인 말로 중국인이라고 부르는 게 나를 더 화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과격하고 거칠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제이슨 면접 3, 2001).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연구 결과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2명의 참여자들이 또래 사이의 싸움을 친구가 되는 기제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 우리는 처음엔 적으로 시작했다... 우리는 밖에 나가 싸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기 시작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친구가 되었다(트레버 면접 2, 2001).

... 내 진짜 친한 친구 중의 하나는 전에 나와 거의 매일 싸우곤 했었다... 그러나 그런 뒤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험프리 면접 2, 2002).

이들은 또한 폭력의 세대간 전수의 가능성도 보여 주었다. 트레버는 아버지와 주먹 싸움 중 아버지를 때려 병원에서 깨매는 상처를 입혔고(트레버 면접 노트 4, 2001), 험프리는 자신을 때리려는 의붓어머니에게 자신도 의붓어머니를 때리겠다고 주먹으로 위협했다(험프리 면접 2, 2002).

(2) 여성에 대한 폭력

남성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두

집단 모두에서 발생했는데,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 중 2명은 성범죄로 기소되었고,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2명의 참여자들은 여자 친구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 먼저, 성범죄로 기소된 2명은 자신들을 결코 성범죄자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 성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자신들은 피해 여성들은 강간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들이 그 상황에서 분명하게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었다.

학교에서 정학을 받은 후 집에 오니 의붓어머니가 고함을 치면서 나에게 욕을 했다... 아버지에게 의붓어머니가 한 말을 했더니... 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싸우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내 이복 여동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의붓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험프리 면접 2, 2002).

... 이걸 너무 불공평하다... 나도 그때 내가 잘못된 건 알지만 그녀는 나한테 도서관에 같이 가자고 한 장본인이었다... 난 그녀를 강간하지 않았다. 단지 만졌을 뿐이다(니일 면접 1, 2001).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중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2명은 여성들이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여성들이 먼저 폭력을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 형과 내 여자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보고 여자 친구에게 형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 봤는데, 그녀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녀의 종이를 잡아채서 찢었더니 그녀가 나를 침대 위로 밀었다... 난 그녀를 때렸고 그녀도 나를 때렸다... 그녀가 내 눈을 때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난 그녀를 때리고 목도 졸랐다(일라이자 면접 1, 2001).

... 우리는 사소한 말다툼 중이었는데... 그녀가 나를 때렸고 난 그녀를 밀었다... 그녀는 머리를 세게 부딪치고 나서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녀를 때렸다고 했다. 난 그녀에게 손도 대지 않았는데... (토마스 면접 1, 2001).

위에 이야기된 4명의 참여자들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두 집단의 참여자들 모두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성과 권력에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7) 범죄 동기

남성성을 표출할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 다양한 청소년 범죄는 남성성을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공헌한다(Messerschmidt, 1993).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범죄 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남성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범죄 동기에 대해 질문했을 때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 중 절반이 빠른 돈벌이 수단으로 범죄에 대한 유혹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범죄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유

지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 전화세 등으로 이모나 어머니나 언제나 돈이 필요했다... 난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느꼈다... (브래드 면접 4, 2002).

내 친구가 차를 훔치자고 했을 때 화가 났다. “왜 내 가장 좋은 친구가 나를 이런 데 몰아넣는 걸 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내 친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차를 훔치고 있었다... (트레버 면접 1, 2001).

...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다. 난 우리 가족을 돕고 싶었다... (터렐 면접 4, 2002).

이상은 가정 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관계 지향적 범죄 동기를 보여 주는 것 같으나, 그들의 관계 지향성은 또한 관계들 안에서 재정적 능력을 통해 남성적 유능감을 보여주려는 욕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남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했을 때, 가정 폭력 경험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책임감, 재정적 능력 등의 측면에서 남성이 되는 것을 정의했음은 주목할 만하다. 즉, 참여자들에게 있어 남성이 된다는 것은 특정하게 규정된 방식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범죄 동기는 남성이 되는 것, 즉 자기 자신이나 중요한 타인을 위해 금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었다.

한편,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범죄 동기를 빠른 돈벌이 또는 남성적인 동년배에게 자신의 영민함이나 용감함을 보여 주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했다.

좋은 옷, 좋은 스테레오, 좋은 TV, DVD 플레이어... 나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 난 돈 쓰는 것을 좋아한다(조쉬 면접 1, 2002).

마리화나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난 마리화나와 돈에 집착한다(토마스 면접 3, 2001).

... 난 진짜로 약물을 팔거나 대마초 피우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큰 일자리를 가질 만한 나이가 아니어서 생각했다. 약물을 팔아서 돈이나 빨리 벌자고(일라이자 면접 1, 2001).

... 범죄 당시 나는 권력감을 느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감정들... 그리고 범죄 후에는 몇 천 달러를 갖게 된다...(에릭 면접 4, 2001).

결론적으로, 두 집단 간에 범죄 동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이 하층 출신인 참여자들은 그들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재정적으로 공헌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범죄는 ‘남성적 책임

감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6. 토론 및 한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남자 범죄 청소년의 가정 폭력 경험이 성적체성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주요 연구 가정은 남자 범죄 청소년의 성적체성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가정 폭력 경험과 범죄 사이의 있음직한 관련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초도로우의 정신 분석적 대상관계 접근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가정 1은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의 성적체성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연구 결과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들이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들보다 피해자로서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아동기의 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의 부모 애착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지지했다. 둘째, 가정 2는 남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분리과 차이를 지향한다는 길리건의 주장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남자 범죄 청소년은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에 비해 좀더 관계적인 성적체성을 구성하여 가정 2를 지지했다. 셋째,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의 관계적 성적체성이 청소년의 과장된 남성적 표현에 대한 집착을 완화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가정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됐다. 즉,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은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보다 남성적 표현에 덜 집착하고 있었으나, 체력, 운동 능력, 성적 유능감 등의 영역에서는 두 집단의 참여자 대부분이 유사하게 과장된 남성성에 대한 집착을 나타냈다. 넷째, 관계 지향적 성적체성을 형성한 남자 청소년의 범죄 동기는 덜 관계 지향적인 남자 청소년의 범죄 동기와 다를 것이라는 가정 4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관계적 성적체성을 형성한 남자 범죄 청소년 중 절반이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유지의 측면에서 범죄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들의 관계 지향적 범죄 동기는 전통적 남성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재정적 지원자 또는 보호자가 됨으로써 관계 내에서 남성적 유능감을 보여 주기 위한 욕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의 범죄 동기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들의 범죄 동기인 빠른 돈벌이, 영민함과 용감함을 보여 주려는 남성성의 표현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의 목적은 예외가 발견되면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는 보편적인 서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Znaniecki, 1934). 즉, 실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어떠한 자료 분석도 최종적일 수 없고 연구한 현상에 대한 예측을 허용할 수 없다(Znaniecki, 1934).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가정 폭력 경험과 성적체성 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실험적인 설명만을 제공할 뿐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에 제시되는 자료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의 한계들에 대한 이해 하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가정 폭력 경험이 어떻게 성적체성의 구성과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에 참여한 남자 범죄 청소년들 사이의 가정 폭력 경험에서의 차이들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적체성 구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인 인종, 나이, 미혼부로서의 위치 등에서의 차이점들과 유사점들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결여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집단에 이러한 요소의 다양성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해석은 가정 폭력 경험 외에 남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구성과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들을 구별할 여지를 남긴다. 다음으로, 자료 분석에서 오류를 줄이는 것은 연구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 모순적이거나 모순적일 것 같은 자료에 있는 요소들을 찾고 논의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사례 연구(negative case analysis)'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례들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분석을 재정련하고,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세련화를 증가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다(Silverman, 1989).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연구자가 본 연구의 가정들을 반박하는 예들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 해석의 범위가 제한되어진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의 가정 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동안 남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은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남성적 이데올로기에 덜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남자 청소년의 남성성은 가정 폭력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독특한 사건이나 경험들의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성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 사회복지 실천, 후속 연구를 위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질적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의 성정체성 구성은 생물학적 성에 따른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를 오가는 유동적인 형태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거대 이론들이 무한한 인간의 구체적 경험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학문적 사고에 도전하는 이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전통적인 남성 이데올로기가 남자 청소년 폭력 및 범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남자 청소년들이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이분화된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양한 형태의 남성성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청소년 대상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의 성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를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구성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가정 폭력 경험과 청소년의 성정체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arker, G., & Loewenstein, I. (1997). Where the boys are: Attitudes related to masculinity, fatherhood, and violence toward women among low-income adolescent and young adult males in Rio de Janeiro, Brazil. *Youth and Society, 29*(2), 166-196.
- Barnett, O. W., Miller-Perrin, C. L., & Perrin, R. D. (1997). *Family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An introduction*. Thousand Oaks, CA: Sage.
- Benson, P. L., & Vincent, S. (198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xist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SATW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5*(2), 276-291.
- Benner, P. (1994). *Interpretive phenomenology: Embodiment, caring, and ethics in health and illness*. Thousand Oaks, CA: Sage.
- Brooks, C. R. (1994). Using ethnography in the evaluation of dru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9*, 791-801.
- Caputo, A. A., Frick, P. J., & Brodsky, S. L. (1999). Family violence and juvenile sex offending: The potential mediating role of psychopathic traits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wome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6*(3), 338-356.
- Carden, A. D. (1994). Wife abuse and the wife abuser: Review and recommend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2*(4), 539-582.
- Carlson, B. E. (1990). Adolescent observer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5*(4), 285-299.
- Chodorow, N. (1974). Family structure and feminine personality. In M. Z. Rosaldo & L. Lamphere (Eds.), *Women, culture and society* (pp. 49-66).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ffey, A., & Atkinson, P. (1996). *Making sense of qualitative data: Complementary research strategies*. Thousand Oaks, CA: Sage.
- Connell, R. W. (1987). *Gender and power*.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onnell, R. W. (1995). *Masculiniti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obash, R. E., & Dobash, R. P. (1979). *Violence against wives: A case against patriarchy*. New York: The Free Press.
- Fantuzzo, J. W., & Mohr, W. K. (1999). Prevalence and effects of chil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he Future of Children, 9*(3), 21-32.
- Farrington, D. (1989).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4*, 79-100.
- Freud, S. (1949).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New York: Norton.
- Ganley, A., & Schechter, S. (1996). *A national curriculum for child protective services*. San Francisco: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 research, New York: Aldine.
- Hawkins, J. D., Herrenkohl, T. L., Farrington, D. P., Brewer, D., Catalano, R. F., Harachi, T. W., & Cothorn, L. (2000). *Predictors of youth violence* (Bulleti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Hicks, R. A., & Gaughan, D. C. (1995). Understanding fatal child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19(7), 855-863.
- Holden, G. W., Geffner, R. A., & Jouriles, E. N. (1998). *Children exposed to marital violence: Theory, research, and applied issu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ress.
- hook, b. (1984). *Feminist theory: From margin to center*. Boston: South End.
- Jonson-Reid, M. (1998). Youth violence and exposure to viol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 159-179.
- Jouriles, E. N., & Norwood, W. D. (1995). Physical aggression toward boys and girls in families characterized by the battering of wom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69-78.
- Lather, P. (1991). *Getting smart: Feminist research and pedagogy with/in the postmodern*. New York: Routledge.
- Majors, R. (1986). Cool pose: The proud signature of black survival. *Changing Men: Issues in Gender, Sex, and Politics*, 17, 5-6.
- Messerschmidt, J. W. (1993). *Masculinities and crime*.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Messerschmidt, J. W. (2000). *Nine lives: Adolescent masculinities, the body, and violenc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00). *Safe from the start: Taking action on children exposed to violence* (Publication #NCJ182789). Online: <http://www.ncjrs.org/pdffiles1/ojdp/182789.pdf>
- O'Neil, J. M., & Nadeau, R. A. (1999). Men's gender-role conflict, defense mechanisms, and self-protective defensive strategies. In M. Harway & J. M. O'Neil (Eds.), *What causes men's violence against women?* (pp. 89-116). Thousand Oaks, CA: Sage.
- Parsons, T. (1970).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Free Press.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Sage.
- Pleck, E. (1987). *Domestic tyranny: The making of American sound policy against family violence from colonial times to pres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leck, J. H., Sonenstein, F. L., & Ku, L. C. (1994). Attitudes toward male roles among adolescent males: A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Sex Roles*, 30, 481-501.
- Polk, K., & Ranson, D. (1991). The role of gender in intimate homicid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24, 15-24.
- Pyke, K. D. (1996). Class-based masculinities: The interdependence of gender, class, and interpersonal power. *Gender and Society*, 10(5), 527-549.
- Ringer, F. (1997). *Max Weber's method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arpa, A. (2001). Community violence exposure in a young adult sample: Lifetime prevalence and socioemotional effec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 36-53.
- Scott, J. W. (1988).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ilverman, D. (1989). Telling convincing stories: A plea for more cautious positivism in case studies. In B. Glassner & J. D. Moreno (Eds.), *The qualitative-quantitative distinction in the social sciences* (pp. 57-77). Dordrecht: Kluwer Academic.
- Silvern, L., Karyl, J., Waelde, L., Hodges, W. F., Starek, J., Heidt, E., & Min, K. (1995). Retrospective reports of parental partner abuse: Relationships to depression, trauma, symptoms, and self-estee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3), 177-202.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 Thorne, A. (1995). Developmental truths in memorie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63*, 139-163.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2). HHS News: Year 2000 Child Abuse and Neglect Findings Released. Online: <http://www.acf.hhs.gov/news/press/2002/abuse.html>.
- U.S. Department of Justice (1998). Violence by Intimates: Analysis of Data on Crimes by Current or Former Spouses, Boyfriends, and Girlfriends. Online: <http://www.ndvh.org/dvInfo.html#stats>
- van Manen, M. (1997).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London, Ontario: Althouse.
- Witt, S. D. (1997). Parental influence on children's socialization to gender roles. *Adolescence, 32*(126), 253-257.
- Zahn-Waxler, C. (1993). Warriors and worriers: Gender and psychopathology.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5*, 79-90.
- Znaniecki, F. (1934). *The method of sociology*. New York: Farrar & Rinehart.

ABSTRACT

This exploratory qualitative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on male adolescent offenders' masculinities. Empirical and theoretical literature suggests that negative male role models in violent families result in male adolescents' experiencing conflict in constructing gender identities, especially masculinities. Moreover, criminologists argue that masculinities are often connected with crimes as a way to prove masculine competence.

This study compares male adolescent offenders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with those who have not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and explores how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influence the construction of gender identities among male adolescent offenders. The study used a secondary qualitative data analysis method. The data consisted of ethnographic in-depth interview transcripts, observational field notes, and formal facility records collected at a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y in Minnesota.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was a "constant comparative method" that sought to understand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he expressed gender narratives and identity patterns between the two groups of offenders. This process also examined differences within each group.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revealed that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in childhood may be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gender identities during adolesc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male adolescent offenders who had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ended to attach themselves to oppressed mothers more readily than those who had not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Next, their attachment to mother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more relational gender identities although most participants, regardless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had much in common regarding gender expression. Finally, despite these relational gender identities, male adolescent offenders who had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ended to depend upon violence and crimes to show masculine competence, as did male adolescent offenders who had not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he study findings suggest a need for research to understand the construction of gender identities in the context of particular experiences and the importance of building theories that advanc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nstruction

of masculinities and youth crime.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social work programs that protect young men from adherence to exaggerated masculinity, which is often associated with crimes.